

건강할 때에나 병든 때에나

몇 달 전에 원로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신 적이 없는데도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70세가 훨씬 넘어서 돌아가셨다니 '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스러운 일은 아내를 장례한지 몇 주일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쌍장례'가 흉악한 일이지 어떻게 축복된 일이나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자기만 오래 살면 홀아비의 추레함이 짙을 것이기 때문에서였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아름다운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모님을 17년간이나 간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중풍으로 누워 17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 꼼짝없이 누워서 살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했고 대소변도 물론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내의 손발이 되셨습니다. 밥을 먹여 준 것은 물론이고 물을 삼키지 못하고 주르륵 흘리면 수건으로 입언저리를 닦아 주었습니다. 매일 목욕을 시켜 냄새나지 않도록 하고 옷도 늘 갈아 입혔습니다. 아내의 대변인들 향기로울 수는 없지만 목사님은 조금도 쟁그리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찬송가를 부르며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실로 아내의 손발 노릇보다 훨씬 훌륭하게 뒷바라지했습니다. 아예 아내의 몸뚱이 노릇을 했던 셈입니 다.

이 목사님께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에 서약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때에나 병든 때에나"서로 사랑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주례를 할 때마다 또한 신랑신부에게 그렇게 서약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병들자 그의 머리에 첫 번 떠오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건강할 때에나 병든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병든 때에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내를 보살피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할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대변을 받아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던 분이 돌아 가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병들면 병이 들었으니까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야 이 지구가 "사랑의 마을"이 됩니다.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 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 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2권 4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경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11월 5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

“교회에 안 가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나?”

Q)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 지금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지금의 이 생활이 더 진실된 것 같다

A) 교회는 신 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결함투성이의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모든 면에서 완전한 조직집단으로 보려는 기대심리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심리가 하나라도 적중하지 않을 경우, 크나큰 실망감에 휩싸이거나 심지어는 허망감과 배신감에까지 이르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인하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려는 이들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한계를 비춰보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인격과 행동에서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죄의 금 가운데 그 어느 금도 밟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앞으로도 내내 그렇게 완벽한 신처럼 살 자신이 있습니까?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니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메카나키'라는 종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실천'에는 회개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용서, 구제와 교제가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실천'들은 방안에 앉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폐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방구석의 자기한계로부터 탈출하여 우선 밖으로 나오기를 권합니다. 말씀의 성전을 다시금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인 도 자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 같 이
*찬 송 Hymn	23 장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8 (시 19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10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영길 집사
성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가 14:3-9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시몬집의 여인 방문객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02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찬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	--------------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다음주일에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 *10월 현재: 창세기 9명 출애굽기:4명 레위기:2명
2. 장년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3기)
 - *일시: 11월 7(화) 저녁 7:30
 - *장소: 노은숙 집사 가정
95A Eban Ave. Hillcres. ☎ 418-3679
 - *대상: 등록번호 10번 이후부터(김시욱.장선주.김교섭.정희자.김종암.한은섭.김영길.신경화.이정수.최재학.노은숙)
3. “Christmas in Calvary”을 위한 성가대 칸타타 연습
 - *매 금요일 저녁 7:30 *장소: Adria
4. ‘제1 약속의 아비’(50세 이상):매 월 첫째주 금요일
이번주 금요일은 “제1 약속의 아비” 정기모임일입니다.
 - *일시: 11월 10일 저녁 7:00(성가대 연습전)
 - *장소: Adria
5. 임시 제직모임: 찬교시간 후 갖습니다(10분)
6. 셋째 주일에는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 *감사주일특별헌금은 없습니다. 매월 드린 ‘이삭줍기’헌금이 감사주일헌금입니다
1년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으로 자녀들과 함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11월의 교회력
 - *7.14.21(화)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 *3일 이후(매 금요일).칸타타 연습
 - *19(주일) 감사주일

< 11월 예배 위원 >

일 자	헌금위원	기 도	teatime봉사
11/5일	김시욱.장선주	김 영 길	최윤호.한 건
12	이선우.조순정	조 순 정	김성국.변지웅
19일	지윤수.김 효	노 은 숙	이경석.이선우
26일	김교섭.정희자	송 정 섭	김교섭.김효권